

## 헝가리, 산업경쟁력 상실로 인한 외국인투자 감소 우려 높아져

- 지난 10월 22일 IBM社는 헝가리 Szekesfehervar에 위치한 하드디스크 생산공장을 올 연말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IBM 공장은 독일 Audi社의 헝가리 현지 자동차 조립공장에 이은 헝가리 제 2위의 수출공장으로 헝가리 총 수출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의 공장 폐쇄 조치로 헝가리는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3,600여명의 근로자들도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IBM社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수 개월 전 Hewlett Packard社와 Microsoft/Flextronics International社가 헝가리 소재 비디오 게임기 공장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키로 한 조치에 뒤이은 것으로, 헝가리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최근 국내외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음.

### □ 산업경쟁력 상실의 책임을 놓고 정부와 중앙은행간 공방

- 최근의 경제 관련 내각 회의에서 메드제시(Peter Medgyessy) 총리는 중앙은행의 경직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산업경쟁력 상실의 주범이라고 성토했음. 즉, 메드제시 총리는 중앙은행이 포린트貨를 지속적으로 고평가된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출기업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중앙은행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음.
- 또한, 메드제시 총리는 실질이자율이 너무 높아 수출기업들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중앙은행에 대하여 기준이자율을 인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음.

- 단위당 노동비용을 근거로 산출한 실질이자율 분석에 따르면, 산업생산성의 현저한 향상과 실질임금상승률의 적정수준 억제 등이 맞물리면서 포린트貨의 실질가치는 1990년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결과 1997~2000년 중 헝가리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관리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2001년 5월 물가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환율변동폭(trading bands)을 유로貨에 대한 중심환율(central parity rate)의 상하 2.25%에서 15%로 대폭 확대하였음. 이어 10월에는 이제까지의 크롤링페그(crawling-peg) 환율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물가상승률 관리를 통화당국의 공식적인 정책목표로 채택하였음.
- 그 결과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유로貨에 대한 포린트貨의 명목가치는 10% 가량 상승하였음. 2001년 헝가리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실질증가율이 9%로 낮아진 데는 이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2년 1~7월 중 EU 시장에 대한 헝가리의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8% 증가에 그쳤으며, 2002년 전체로는 이보다 좀 더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헝가리 수출의 3/4를 차지하는 EU 시장의 수요가 계속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포린트貨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수출산업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음.
- 유로貨 경제권으로의 조속한 편입, 즉 유로貨 도입을 가능한 한 빨리 앞당기고자 하는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정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말까지 연간 물가상승률을 3%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에 따라 계속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이러한 통화정책의 여파로 인해 현재 실질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임.

## □ 경쟁력 상실의 근본 원인은 임금상승

-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헝가리 산업계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경쟁력 상실의 최대 원인으로 급격한 임금상승을 지적하고 있음.
- 지난 4월의 총선에 앞서 정부가 근로자 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하반기 들어 실질임금 수준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경쟁력의 감퇴에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임.
- 이 같은 임금상승 추세로 인해, 1993~2000년 중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꾸준히 감소했던 미 달러화 표시 단위당 노동비용이 2001년에 전년 대비 12% 이상 상승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전년 대비 2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도 명목임금상승률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상승률 16%보다 훨씬 낮은 약 7.5%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포린트화 표시 단위당 노동비용의 상승률이 3% 안팎에 그치게 될 것임을 의미함.
- 그러나 현재 포린트화가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로화가 내년에도 미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미 달러화 표시 단위당 노동비용의 상승률은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헝가리에 대한 다국적기업(특히 미국계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전문연구원 오경일(☎3779-6646)  
E-mail : OKI1122@koreaexim.go.kr